

외과(外科) 명칭에 관한 설문 조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외과학교실

정성후 · 정연준 · 유희철 · 김재천 · 강남부

Survey of Surgeon's Opinions for Name of Surgery

Sung Hoo Jung, M.D., Yeon Jun Jeong, M.D., Hee Chul Yu, M.D., Jae-Chun Kim, M.D. and Nam Poo Kang, M.D.

Purpose: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termine surgeon's opinions on the name of the Department of Surgery in Korea.

Methods: This report is a survey of 797 randomly selected questionnaire (28.8%) from among 2,804 submitted by members of the Korea Surgical Society.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6 questions.

Results: Among the respondents, 70.4% were in the 4th or 5th decade of age, and 51.9% were working for private clinics. Among the names for the Department of Surgery in Korea, 48.9% included the word Surgery and 44.2% the word General surgery. Respondents who consider that we have to make use the unified Korean name of the Department of Surgery were 90.1%.

Conclusion: The name of our department is considered as a common issue by most members. Most members insist that as much as possible, we should make use of the unified name Department of Surgery. We confirm that it is important to lead the public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our department by means of a far-reaching public information and that policy must be made and carried out by the Korea Surgical Society. (J Korean Surg Soc 2001;60:103-106)

Key Words: Surgery, Name, Questionnaire

중심 단어: 외과, 명칭, 설문지

Department of Surger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Chonbuk, Korea

책임저자 : 정성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 561-712, 전북대학교병원 외과

Tel: 063-250-1580, Fax: 063-271-6197

접수일 : 2000년 12월 13일, 게재승인일 : 2000년 12월 14일

본 논문의 요지는 2000년도 춘계 대한외과학회에서 구연되었음.

서 론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일부 임상 과(科)들은 명칭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는데 비해 현재 우리 과는 외과 또는 일반 외과라는 명칭으로 한글과 영문 표기가 개인 또는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또한 환자 및 일반인 그리고 다른 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과 명칭 사용에 관한 여러 외과의사들의 의견을 알아봄으로써 외과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설문지는 대한외과학회 주소록 및 병원협회 주소록을 통하여 외과 전공의 및 전문의 중에서 무작위로 2,804명을 선정하였다. 설문지 발송 및 회수기간은 2000년 1월 17일부터 2000년 4월 22일까지였고, 발송은 우편을 통해 실시하였으며 우편 및 팩스를 통해 회신을 받아 의견을 수렴하였다. 응답자는 반송된 32예를 제외하고 797명이었으며 회수율은 28.8%이었고, 설문지는 객관식으로 총 16항목이었다.

결 과

설문지의 항목과 그에 따른 응답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1. 선생님의 나이는 몇 세이십니까? [응답자: 797명 (100%)]

20대 25명 (3.1%), 30대 302명(37.9%), 40대 259명 (32.5%), 50대 128명(16.1%), 60세 이상 83명(10.4%)으로 30대가 37.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 50대 순이었다.

2. 선생님께서 전문의인 경우 경력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응답자: 696명(87.3%)]

3년 이내 70명(10.1%), 3~5년 이내 83명(11.9%), 5~10년 이내 159명(22.8%), 10년 이상 222명(31.9%), 20년 이상 162명(23.3%)으로 응답자가 적은 이유는 전공의는 전문의가 아니어서 응답을 하지 않아서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20년 이상, 5~10년 이내 순이었다.

3.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지역은 어느 곳입니까? [응답자: 797명(100%)]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93명(36.8%), 부산, 울산, 경상남도 145명(18.2%), 대구, 경상북도 73명(9.2%), 광주, 전라남도 152명(19.1%), 대전, 충청남도 96명(12.0%), 강원도 22명(2.8%), 제주도 15명(1.9%), 기타 1명(0.1%)으로 수도권이 36.8%로 가장 많았다.

4.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직장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응답자: 797명(100%)]

대학병원 162명(20.3%), 대형 종합병원 40명 (5.0%), 중소 종합병원 143명(17.9%), 의원 414명(51.9%),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기관 14명 (1.8%), 군(軍) 병원 17명(2.1%), 기타 7명(0.9%)으로 의원이 51.9%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중소 종합병원 순이었다.

5. 선생님의 근무 형태는 어느 것입니까? [응답자: 796명(99.9%)]

교수 62명(7.8%), 개원의 431명(54.1%), 봉직의 146명(18.3%), 임상교수 9명(1.1%), 전임의 13명(1.6%), 전공의 93명(11.7%), 공중보건의 15명(1.9%), 군의관 20명(2.5%), 일반공무원 3명(0.4%), 기타 4명(0.5%)으로 개원의 54.1%, 봉직의 18.3%, 전공의 11.7% 순이었다.

6. 현재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서 과(科)의 한글 표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자: 788명(98.9%)]

구분 없이 사용한다 34명 (4.3%), 외과 385명(48.9%), 일반외과 348명(44.2%), 기타 21명(2.7%)으로 외과 48.9%, 일반외과 44.2%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7. 현재 선생님이 계신 병원에서 과(科)의 영문 표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자: 788명(98.9%)]

구분 없이 사용한다 87명(11.7%), Department of Surgery 236명(31.8%),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350명(47.2%), 기타 68명(9.2%)으로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가 47.2%, Department of Surgery 31.8%로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가 약간 많았다.

8.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전문의 자격증에 전문과목 표기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95명(99.7%)]

일반외과 543명(68.3%), 외과 184명(23.1%), 잘 모르겠다 68명(8.6%)으로 실제 전문과목이 외과이나 일반외과라고 생각한 사람이 68.3%를 차지하고 있었다.

9. 과(科)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고있는 것이 과(科)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응답자: 779명(97.7%)]

예 524명(67.3%), 아니오 255명(32.7%)으로 과의 명칭이 혼용되어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경우가 67.3%이었다.

10. 과(科)의 명칭이 어느 것이든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95명(99.7%)]

예 716명(90.1%), 아니오 27명 (3.4%), 별 관심 없다 52명(6.5%)으로 과의 명칭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90.1%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11. 과(科)의 명칭으로 인해 환자 및 일반인 그리고 다른 과(科)사람들과 오해나 혼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792명(99.4%)]

있다 569명(71.8%), 없다 223명(28.2%)으로 오해나 혼란을 경험한 경우가 71.8%이었다.

12. 과(科)의 명칭이 환자나 일반인들에게 마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93명(99.5%)]

예 488명(61.5%), 아니오 232명(29.3%), 서로 상관 없다 73명(9.2%)으로 전문성이 부족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한 경우가 61.5%,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가 29.3%이었다.

13. 하나로 통일된 과(科) 명칭이 필요하다면 한글 표기 상 어느 명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88명(98.9%)]

일반외과 162명(20.6%), 외과 467명(59.3%), 종합외과 100명(12.7%), 통합 외과 11명(1.4%), 필요하지 않다 6명(0.8%), 다른 명칭 42명(5.3%)으로 외과를 사용하자는 경우가 59.3%로 가장 많았고, 일반외과가 20.6%이었다.

14. 하나로 통일된 과(科) 명칭이 필요하다면 영문 표기는 어느 명칭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78명(97.6%)]

Department of Surgery 450명(57.8%),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292명(37.5%), 필요하지 않다 9명(1.2%), 기타 27명 (3.5%)으로 Department of Surgery를 사용하자는 경우가 57.8%,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가 37.5%를 차지하였다.

15. 만일 과(科)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해질 경우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과의 이름과 달라도 명칭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까? [응답자: 789명(99.0%)]

바꾼다 509명(64.5%), 안 바꾼다 73명(9.3%), 이름을 보고 결정하겠다 198명(25.1%), 기타 9명(1.1%)으로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면 그 명칭에 따르겠다가 64.5%, 이름을 보고 결정하겠다가 25.1%이었다.

16. 만일 과(科)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해질 경우 모든 회원은 거기에 따라 하나의 같은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795명(99.7%)]

예 667명(83.9%), 아니오 17명(2.1%), 회원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108명(13.6%), 기타 3명(0.4%)으로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면 모든 회원이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가 83.9%,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경우가 13.6%이었다.

고찰

개항 이후 1950년대 초까지 당시 외과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영역을 포함하였으며 거기에 마취까지도 해결해야 했다.(1,2) 학회의 명칭은 1947년 5월 10일 조선외과학회로 창립한 이후 1948년 8월 15일 대한외과학회로 개명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데 6.25전쟁을 경험하면서 외과계는 군진의학을 통하여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1951년 7월 의사 전문의 표방제도를 포함한 국민의료법이 제정되어 후일 전문의 제도의 정착에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951년 9월 공포된 국민의료법 제 4조에 ‘의료업자는 명령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주무장관의 허가 없이 그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없다’ 라고 한 규정은 전문의 제도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보건부는 이 제도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하기 위하여 이해 11월 보건부령으로 공포한 시행세칙에 10개의 전문과목을 정하였으며, 자격취득 수련소요연한을 5년으로 하고 해당과목에 대한 고시제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10개의 전문과목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비뇨기과, 신경정신과 및 방사선과였으며 이에 따라 교실원제도에 의한 수련이 인정되어 1952년부터 1959년까지는 서류심사만으로 외과 전문의 허가증이 발급되었고, 1960년 5월 제1회 전문의 시험을 실시하여 외과 전문의를 배출하였다. 1950년대를 지나면서 의학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고, 특히 외과학의 질적, 양적인 팽창은 엄청나게 커서 각 부문이 전문성을 가진 별도의 학문영역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에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과, 흉부외과 등을 자연스럽게 분리 독립시키게 되었으며 그 모태는 일반외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외과학 전체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1) 보건복지부의 보건정책국에 따르면, 전문의 자격증에 전문과목 표기는 1954년까지는 외과로 하였고, 1955년부터 1989년까지는 일반외과로 하였으며, 1990년 이후는 외과로 개정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가 외과 또는 일반외과로 혼용되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면 30대, 40대가 37.9%, 32.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회활동이 가장 왕성하고 과 명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특히 30대가 많은 이유는 전공의 대부분이 30대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직장의 근무형태를 보면 개원의가 431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봉직의 146명(18.3%), 전공의 93명(11.7%)을 보였는데, 실제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741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345명이 회수되어 19.8%의 회수율을 보인 반면, 의원 및 기타 대상

1,063명에게 설문지를 발송하여 452명이 회수되어 42.5%의 회수율을 보여 개원의의 호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왔다($p < 0.000$). 이는 설문지를 보낼 때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은 의국장 앞으로 일괄 보낸 것이 개원의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답이 적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설문지 자체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도 이유로 생각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의 전문과목 표기에 관한 질문에서는 일반외과로 알고 있는 경우가 543명(68.3%), 외과가 184명(23.1%), 모르겠다가 68명(8.6%)을 보여 실제 전문의 과목이 외과인데도 정확히 모르는 회원이 대부분이었다. 또 과의 한글표기는 외과가 48.9%로 가장 많은 반면 영문표기는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가 47.2%로 가장 많아 한글과 영문표기가 상이하였다

현재 정식 명칭이 대한외과학회임에도 불구하고 199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한외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에서 과 명칭사용의 실태를 보면 외과로 표기한 경우가 212편(76.5%)이었고, 일반외과가 65편(23.5%)이었다.(3) 이는 현재 사용하는 과의 한글표기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인 외과 385명(48.9%), 일반외과 348명(44.2%), 혼용 34명(4.3%)과는 차이를 보였다. 대한외과학회지 조사에서 같은 병원 혹은 의국 내에서 과 명칭사용의 실태를 보면, 혼용이 23예(38.3%), 일반외과를 사용한 경우가 15예(25%)였으며, 외과를 사용한 경우는 22예(36.7%)로 같은 소속이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심지어는 한사람이 자기 소속표기에 외과 또는 일반외과로 구분 없이 사용했는데, 이는 환자나 일반인 그리고 다른 임상과의사들은 물론 대한외과학회 회원 자신도 우리 과의 표기를 어떤 것으로 해야 할 지에 대해 많은 혼란이 있음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에 이러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과 표기에 있어 하나의 공통된 이름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는데 통일된 이름으로 한글표기는 외과가 59.3%로 가장 많았고 영문표기는 department of surgery가 57.8%로 나타났는데 과의 명칭이 어느 것이든 통일되면 대부분의 회원이 같은 명칭을 사용하겠다고 대답하였다.

설문지를 개원의와 비개원의(봉직의, 교수, 전공의, 전임의 등)로 나누고 연령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는데, 개원의와 비개원의로 분류한 결과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의 한글표기에서 개원의의 73.3%가 외과를 사용하고 있었고, 일반외과를 17.9%를 사용하였으나 비개원의의 20.2%가 외과를 사용하고 74.8%가 일반외과를 사용하고 있어 두 군간에 차이를 보였다($p=0.000$). 하지만 통일된 한글표기로 적당한 경우는 두 군 모두 외과가 각각 56.5%, 62.5%를 차지하였다.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것이 과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개원의의 63.9%, 비개원의의 71.2%에서 그렇다고 하여 두 군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비개원의에서 통계학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보였고($p=0.03$), 과의 명칭이 어느 것이든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개원의 86%가 그렇다고 하였고, 의외로 10%에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하여 79.1%에서 그렇다, 2.5%에서 별 관심이 없다고 한 비개원의와 차이를 보였다($p=0.000$). 과의 명칭으로 인해 환자 및 일반인 그리고 다른 과 사람들과 오해나 혼란을 경험하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 개원의 67.9%에서 그렇다고 하였고, 비개원의 76.2%에서 그렇다고 하여 두 군 모두에서 경험이 많이 있었으나 비개원의가 더 많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p=0.01$). 과의 명칭이 환자나 일반인에게 마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원의 71.2%가 그렇다고 하였고, 상관없다가 12.8%를 보여 그렇다가 69.3%, 상관없다가 5.0%를 보인 비개원의와 다른 의견을 보였다($p=0.000$). 만일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해질 경우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과의 이름과 달라도 명칭을 바꿀 용의가 있냐는 질문에 개원의 51.8%에서 바꾼다고 하였고, 33.1%에서 이름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으며, 13.7%에서 안 바꾼다고 하였고, 비개원의에서는 79.1%에서 바꾼다, 16.8%에서는 이름을 보고 결정하겠다, 4.1%에서 안 바꾼다고 하여 두군 간에 다른 의견을 보였다($p=0.000$). 만일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해질 경우 모든 회원은 거기에 따라 하나의 같은 명칭을 사용해야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원의 76.2%에서 그렇다고 하였고, 20.0%에서 회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였으며, 3.3%에서 아니라고 한 반면, 비개원의의 경우는 92.8%에서 그렇다고 하였고, 6.1%에서 회원 각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하였으며, 0.8%에서만 아니라고 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의견차이를 보였다($p=0.000$). 연령군의 비교에서 상기 질문내용에 관한 결과가 50대 이하군과 50대 이상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개원의와 비개원의의 연령분포를 보면 개원의의 경우 40대(42.0%), 50대(22%), 30대(21.8%), 60대(14.2%)순이었고, 비개원의에서는 30대(56.7%), 40대(21.5%), 50대(8.8%), 20대(6.9%), 60대(0.1%)순으로 두 군간에 연령분포에서 차이를 보였다. 개원의와 비개원의의 비교에서 연령이라는 변수를 보정하기 위해 개원의와 비개원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30대와 40대 연령만을 선택하여 상기 질문 내용에 대하여 비교하여 보았는데, 30대와 40대 연령만을 선택한 개원의와 비개원의의 두군의 비교에서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지 않고 혼용되고 있는 것이 과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과 과의 명칭이 어느 것이든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필요하냐는 질문 그리고 과의 명칭으로 인해 환자 및 일반인 그리고 다른 과 사람들과 오해나 혼란

을 경험하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의 한글표기는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 과의 명칭이 환자나 일반인에게 마치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과 만일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해질 경우 현재 선생님께서 사용하는 과의 이름과 달라도 명칭을 바꿀 용의가 있냐는 질문 그리고 만일 과의 명칭이 하나로 통일되어 정해질 경우 모든 회원은 거기에 따라 하나의 같은 명칭을 사용해야 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는 전체 연령군의 결과와 같게 나와 개원의와 비개원의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원의 선생님들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 명칭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과의 한글 표기와 명칭의 통일 및 바꾸는 문제에서도 차이를 보인 것은 개원의 선생님들은 개원하면서 일반외과 보다는 외과가 폭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개업에 유리하리라 생각되고, 외과 전문의로서보다는 일반의 역할을 하면서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칭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는 진료과목이 일반외과로 되어 있고, 다른 과 선생님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명칭으로 인한 문제 인식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결 론

우리 과의 명칭문제는 많은 회원들이 느끼는 공통문제였고, 어느 명칭을 사용할 것인지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어느 명칭이든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과의 통일된 명칭과 환자나 일반인이 우리 과의 성격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폭넓은 홍보 등 외과학회 차원의 대책이 빠른 시일 내 수립되어 실행됨으로써 과의 명칭을 혼용함으로써 인해 발생하는 더 많은 혼란을 막을 수 있고 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REFERENCES

- 1)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50년사. 서울: 의학문화사; 1997.
- 2) 의학신보. 한국의학 100년사. 서울: 의학출판사; 1984.
- 3)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지. 서울: 의학문화사; 1999.1-1999.12